다산포럼

대공황의 거울로 본 미 대선 복기(復棋)

조 영 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 선거를 통해 집권했다는 사실은 많은 지식인을 당혹하게 한 사건이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나 유럽 사회의 뿌리 깊은 유태인 혐오감 등 다양한 설명이 있었지만, 나의 소박한 독서 경험으로 보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셰리 버먼(Sheri Berman)의 '정치가 우선한다'이다.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이 터졌을 때 미국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은 나라는 독일이었다.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전쟁 배상금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던 독일 경제는 미국의 차관과 수출에 의존해 간신히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월가의 주가가 폭락하자 미국 자본이 독일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수출 의존 독일 경제는 무너졌다. 대공황 절정기였던 1932년 미국의 실업률은 23.6%였는데, 독일의 실업률은 32.8%로 실업자가 무려 560만 명에 달했다.

대공황 시기에 독일 사민당은 집권당은 아니지만 제1당이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중산층 이하 독일 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은 사민당이었다. 사민당의 현장 조직책들은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자 사민당 지도부에게 지금 당장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를 지도부에 빗발치듯이 올렸다.

그러나 사민당 지도부, 특히 힐퍼딩(Hilferding Rudolf, 1877~1941)은 일자리 창출과 재정 확대를 요구한 노조의 제안에 대해 지금의 대공황은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공공사업으로 불황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라며 반대했다.

사민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힐퍼딩을 지지했다. 사민당은 경제 위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총선을 치렀고, 결국 전쟁 배상금 지불 거부, 고속도로 건설 등 공공투자와 군수산업 확대, 산업부흥을 위한 금융계와 노동계급의 책무와 같은 국가의 경제 통제를 강조한 히틀러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뉴딜 개혁의 비(非)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 정치 동맹을 만들어냄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했다. 미국과 독일의 차이는 대공황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의 기성 정치권은 민주당의 루스벨트를 통해서 뉴딜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낸 반면, 독일의 기성 정치권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치스의 1930년 총선 득표율 18.3%는 독일 국민들의 나치스 지지가 독일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한 소극적 지지로 시작한 것이란 걸 보여준다. 18.3%의 지지로 득세한 히틀러가 시장 통제와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독일 경제를 부흥시켰고 히틀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공고해지면서 더 큰 비극이 독일과 전 유럽을 휘감은 것이다.

트럼프는 인종주의 때문이 아니라 인종주의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를 설명하는 걸 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쇠락한 공업지역(rust belt) 노동자들의 민주당 외면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와 트럼프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를 부채질해 승기를 잡았다는 두 가지다. 트럼프가 인종주의를 선거 전술로 활용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 사회의 금기를 건드림으로써 미국 사회 주류가 외면하는 손해도 봤다.

자유무역으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동·서부 해안지역의 비교우위산업은 이익을 크게 얻었지만, 운 없이 러스트 벨트에 속한 미국 시민들은 구조조정의 비애를 겪었고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우아한 조정은 경제학책의 은유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미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지적한 대선 후보는 트럼프와 샌더스였다. 샌더스가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자 미국 노동자들 손에 남은 카드는 트럼프뿐이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고학력 여성의 이슈인 유리천정 깨기라는 정치구호에 공감할 수 없었다. 샤이 트럼프는 인종주의 문제로 꺼림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잔혹성을 정면으로 비판한 트럼프를 찍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를 말하다'로 번역한 폴 크루그먼의 'The Conscience of a Liberal'(리버럴의 양심)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킨 신자유주의 시대를 종식시킬 제2의 뉴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담대한 희망'을 말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노력과 진정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권위는 무너졌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은 아직 제시되지 못했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구체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 담대한 오바마, 21세기형 뉴딜 동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2의 루스벨트를 후보로 내세워야 했다.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외면한 민주당의 패배란 것이 이번 대선을 가장 잘 정리한 요약이다.

청춘 톡·톡

나의 병신년(丙申年)

박 준 성
광주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또 만취상태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울분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결혼한 선배의 신혼집에서 한잔 딱! 기울이고 왔지요. 어쩌다보니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송년회의 느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큰 우환거리에서부터 이야기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도는 인터넷 신조어로 '닉값' 그러니까 '이름값' 한다며 다들 웃었습니다. 덕분에 각자 올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제목에서 얼추 직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작게는 '올해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것이며 크게는 '아주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 27세 남성이 병신년(丙申年)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아무도 궁금해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듯 저라고 뭐 별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저냥 살았지요. 다만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저로서는 1월1일부터 9월4일까지는 연신 "누구나 공평하게 한방! 죽창! 죽창이 필요하다!"를 외쳤습니다. 이는 "기성세대와 자본주의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실은 절망하고 있는 나를 다잡기 위한 최대한의 멘탈 관리일 뿐이었으며 진짜 '어른'들 앞에서는 소리 내어 말하지도 않았고 "주말만 와라"며 하루하루 일하며 살았습니다.

9월 5일 저녁이었습니다. 2주 동안 연락도 없었으며 대놓고 눈앞에서 저를 피해다녔던 애인이 술에 취해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때 저는 연락 없던 그녀에게 맞불작전을 펼치듯 저도 연락하지 않았었습니다. 3년을 사귄 우리가 '마침내 만남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구나.' 촉이 왔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업무 차 은행에 갔던 저에게 다시 그녀가 울면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빠 다시 잡으려고 출근하는 길에서 기다렸는데 안 와서 전화했어. 만나자 어디야?"

그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9월 6일 새벽에 올라온 저의 칼럼(청춘보고서 : 제 절망을 소개합니다)을 보고 다시 잡을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을 전어 같은 저의 글쓰기에 떠났던 애인이 돌아오겠다고 하다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틀 뒤에 우리는 한 달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잠정적 이별이었습니다. 제가 썼던 글을 다시 읽어 봤습니다. 요리도 보고 조리도 보고 씹고 뜯고 맛봤습니다. 나는 왜 차였을까? 왜 이 글을 보고 다시 돌아온다 했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절망도 전염이 된다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을지도 모르지요. 제 글을 보고 갱생의 여지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보고 있니? 한 달 뒤에 답을 주기로 했었지 않니? 벌써 두 달이 지났어. 내가 직접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해도 되지만 나는 소심하기도 하고 혹여나 너의 다리를 붙잡고 애걸복걸할까봐 그러지를 못하겠어. 나는 요새 자기합리화를 위한 노래를 찾아 듣고 있어. 예를 들면 너도 잘 알고 있는 내 비장의 18번인 슈퍼키드의 '어쩌라고' 라든가 복면가왕에 나왔던 하면된다 백수탈출의 '녹턴' 같은 노래들 말이야. 요즘 내가 밀고 있는 유행어는 "준성이 착해요. 엉엉. 이젠 착한 거 밖에 없어요"란다.

친애하는 독자여러분 이제 2016년도 얼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닉값'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춘이 뭐 별거 인가요?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 병신년(丙申年)이 지나면 6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닉값'이 끽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1등은 정해져 있는 걸요. 깔깔.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 고

댐 대신 습지 복원을 선택한 이유

김 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945년 4월 25일. 엘베강 토르가우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만났다. 베를린 함락 일주일 전이다. 미군 제69보병사단과 소련군 제58전위사단 양군병사들은 평화를 맹세하며 축배를 들었다. 이를 두고 '엘베의 맹세'라고 한다. 이를 모티브로 '엘베 강의 만남'이라는 영화와 음악도 만들어졌다. 현실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냉전이데올로기 최전선이 되었다.

엘베강은 독일과 체코의 국경인 리젠산맥 남쪽 비탈에서 발원하여 몰다우강, 보헤미아 분지의 지류의 하천을 모아 드레스덴, 마그데부르크, 함부르크 등 독일 북부를 횡단하여 북해로 빠져나간다. 그 길이가 1154㎞, 유역면적은 14만 8000㎢에 이른다. 한강보다 두 배가 길고 유역면적은 다섯 배에 이른다. 댐이 없으니 와덴해의 바닷물이 밀려오면 함부르크까지 영향을 미친다. 니더작센주에 속하는 쿡스하펜은 조차가 커 폭이 15㎞에 이르는 나팔모양 하구갯벌이 발달했다. 그곳 세계유산센터를 찾았다. 배에 차를 싣고 엘베강을 건넜다.

하구 갯벌에는 오리류, 도요새류 그리고 갈매기들이 휴식을 취하고, 강에는 요트가 심심찮게 오간다. 해변에 요트를 정박하고 캠핑을 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함부르크로 향하는 화물선도 보였다. 역동적인 모습이다. 사실 엘베강은 1980년대 후반까지 유럽 최악의 오염지역이었다. 강을 따라 함부르크를 포함해 크고 작은 도시들이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수은, 비소, 카드뮴 유입으로 강은 중금속 오염이 심각했다. 여기에 많은 화물선이해 함부르크까지 운항하고, 그곳에서 체코 국경 협곡까지 배가 항해한다.

이뿐이 아니다. 발트해로 이어지는 운하가 이어져 있다. 오염과 악취의 대명사였던 엘베강이 어떻게 수변레저과 화물선과 레저보트가 오가는 곳으로 바뀌었을까.

독일은 통일 후 산업시설을 줄이고 강한 폐수규제정책을 실시했다. 오염원을 줄였지만 더 큰 문제는 홍수였다. 2002년과 2013년 최악의 홍수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약 27조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홍수방지용 댐건설 논의되었다. 하지만 녹색당과 환경단체는 댐 대신에 재자연화를 제시했다. 독일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유가 기가막힌다. 물고기들이 오갈 수 없다는 점과 강이 자기정화 능력을 떨어뜨린 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4대강을 선택한 이유와 정반대다. 기존의 제방 위치를 더 뒤로 미루어 수변공간을 넓히고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농사를 짓던 농지는 습지로 바꾸었다. 이렇게 개선한 강과 습지를 포함해 독일 5개주 400㎞구간 엘베강 수변 지역 140ha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엘베강 재자연화가 진행되면서 멸종위종이 되돌아왔다. 강폭이 넓어지니 자연스럽게 홍수 위험이 줄어들었다. 그곳은 생물의 서식지와 인간의 수변활동 공간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대응, 수질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등 효과를 얻었다.

엘베강 하구 세계유산센터는 강과 갯벌과 바다의 역동적인 모습을 전시하고 있다. 센터가 있는 자리가 바다와 갯벌과 잡목지대와 강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건물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페터슨씨가 안내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전시물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강과 갯벌 그리고 바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였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갯벌면적이 축소되었을 때 조류의 먹이활동과 번식지가 줄어들고 북극곰이 내려오고, 콕스하펜 주민들은 수상가옥을 짓고 배를 가지고 생활해야 할지도 모르는 생활상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센터는 수영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한다.

엘베강 재자연화의 목표는 철갑상어 회귀라고 한다. 한 때 유럽을 대표했던 바다생물이다. 1990년대부터 철갑상어 치어들을 방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과 갯벌과 바다를 생물다양성 구역으로 정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냉전기 '엘베의 약속'은 이제 '지구와 약속'으로 거듭나고 있다.

社 說

대면 조사 또 거부…눈 감고 귀 닫은 대통령

온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빨리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과 정계 원로들도 나섰다. 이들은 탄핵 대신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요청했다. 다만 대선 일정과 시국 수습을 감안해 내년 4월 이내로 시한을 정해 물러나 달라고 했다.

이처럼 거센 퇴진 요구에도 박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어제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유 변호사가 밝힌 '대면 조사' 거부 이유도 어이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29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특검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토를 달지 않고 지체 없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사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다섯 차례의 촛불시위가 있었다. 지난 주말 5차 촛불집회는 첫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촛불집회 때마다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끝나고 나면 늘 귀를 막고 입을 닫았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세 번째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지금이라도 자기변호에 급급하지 말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임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획일된 역사관 주입 국정교과서 철회해야

교육부가 어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기존 검정 교과서와 달리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등 역사 쟁점을 둘러싼 논쟁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한 기술은 그동안 뉴라이트 등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1948년 건국설'과 맥이 맞닿아 있다.

또한 역대 정부와 관련한 서술에서도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하는 등 보수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했다. 게다가 한 페이지를 할애한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군부의 잔혹상을 희석시키는 편향된 기술이 많았다.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하자 가혹한 진압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저항했다"고 표현해 신군부가 충돌을 야기한 주체라는 점을 밝혔을 뿐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는 식에 그쳤다.

군부가 자행한 유혈 진압도 '과잉 진압' '가혹한 진압' 등의 추상적 표현에 머물렀다. 이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군부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한참 퇴보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를 균형있게 기술한다는 편찬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된 '올바른 교과서'는 이 같은 언급이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편향과 왜곡된 사관뿐만 아니라 획일된 역사관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국정 교과서는 문제가 많다. 교육부는 여기 저기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無 等 鼓

아침 이슬

'아침 이슬'을 처음 접한 때는 1980년대 초였다. 고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고모가 사는 농촌 마을을 찾았을 때 일이다. 그곳에는 마침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들이 '농활'(농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학생들은 낮에는 땡볕 속에서 '피사리'(피를 뽑아내는 일)를 하는 등 주민들의 농사일을 거들었고, 저녁에는 모정에서 마을 주민이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 자리에 우연스럽게 끼여 앉아 '아침이슬'을 배우게 됐던 것이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처음 듣는 노랫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자리가 파한 후, 또래 고종사촌에게 가사를 물은 뒤 종이에 적어 반복해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1970년 만들어진 그 노래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김민기와 양희은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대학에 입학해서 '상록수'와 '작은 연못', '서울로 가는 길', '가을 편지' 등 또 다른 노래를 배웠다. 비로소 김민기의 노래 세계에 대해 일부나마 알게 됐다. '상록수'는 그가 전북 익산에서 농사를 지을 때, 공장에서 만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동거하는 부부들의 합동결혼식을 위해 만든 축가였다고 한다.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로 시작하는 그 노래 원제는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었다.

그의 노래는 대부분 금지곡으로 묶여 있었지만 대학가와 노동 현장에서 널리 불려졌다. 그리하여 '광야'와도 같았던 1980년대 암울한 시대를 체념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푸르른 솔잎'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었다.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서 '아침 이슬'과 '상록수'가 울려 퍼졌다. 가수 양희은의 노래에 시민들은 '떼창'으로 화답했다. 같은 시간, 광주 금남로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과 '무등산 출정가' 등이 불려졌다.

그날, 비 내린 거리를 메운 수백만 개의 촛불은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맘껏 푸른' 상록수를 닮아 있었다. 광주와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타오른 '촛불'들의 간절한 바람이 노랫말에 담겨 메아리쳤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